

# 광주형 일자리 협상 다시 궤도에 오르나

### 市 2급 일자리특보 박병규 전 경제부시장 임명 임금협약 유예 반대 노동계 협력 이끌지 주목

광주시가 지역노동계의 소통창구인 2급 상당 사회연대일자리특별보좌관에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임명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사와 함께 민선 7기가 내건 '노사상생도시'를 위해 민선 6기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진두지휘한 박 전 부시장을 전격 발탁한 것이다.

박 특보가 노사상생협의회의 결정사항, 즉 노사 임금협약 유예기간 설정에 반대하고 있는 지역노동계를 어떻게 설득해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박 특보는 '노사상생도시 광주' 건설의 필수조건인 노동계와의 고교 역할 및 정책자문 등을 통해 노동문제와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 전반에 대해 이 시장을 특별 보좌한다. 박 특보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대한민국 제조업 재생의 대안으로 부상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에 주력하게 된다.

박 특보의 임명이 이용섭 시장의 '노사상생도시 광주' 선언에 이어 곧바로 단행되고, 시장과 부시장 다음으로 높은 2급 상당의 직급에 임명된 것은 그만큼 이 시장

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한 강한 의지가 반영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박 특보는 지난 1990년 아시아자동차(현 기아차 광주공장)에 입사해 노조지회장을 거쳐, 2014년부터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 일자리정책특보, 경제부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6일 현대자동차와 광주시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투자협약 체결식이 무산된 결정적인 원인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에 대해 지역노동계가 반발한 것이다. 이 조항은 '신설법인 노사상생협의회의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지역노동계는 3~5년간 임금단체협상을 유예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강력 반발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는 26년만의 국내 투자, 추가 투자자 모집 등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는 우선 지역노동계를 설득해 협상테이블로 이끌고, 현대차와 조율하면서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안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박 특보를 임명하는 자리에서 "박 특보는 30년간 노동현장 경험과 민선 6기에는 일자리 정책특보에 이어 경제부시장까지 역임하며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완성차 공장 투자유치 성공과 노사상생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지역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적임자다"고 높이 평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2030년까지 세계 의료산업도시 도약

### 기업·병원·대학 등 참여 의료산업발전협의회 출범

광주시는 15일 오전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광주의료산업발전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의료산업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의료산업 관련 기업과 병원, 대학, 연구기관 등 23개 산학병연관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지역의 의료산업 발전정책 제언과 국책과제를 발굴해 2030년까지 세계적인 의료산업도시로 도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13년 '차교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구축' 등 생체의료소재부품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

성했으며, 이에 따라 광주의료산업은 연 11% 이상의 비약적 성장을 거듭했다. 올해는 정부 예산에 안과광학 의료기기 지원사업, 한국뇌연구원 협력연구사업, 마이크로로봇 사업 등 의료산업 관련 신규 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 의료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바이오 화장품, 3D프린팅, 치매관리 및 의료관광 등 서비스 분야까지 의료산업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이병문 문화경제부시장은 "의료산업 발전협의회가 혁신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광주시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헬스케어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전남도, 총 8곳 선정 계획

전남도는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오는 31일부터 2월8일까지 상반기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올해는 중앙정부 공모에서 3곳, 전남도에서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했다.

오는 17일에는 시군 공무원과 관련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토론회를 나주시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열고, 생활 SOC 반영과 역사, 문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공모 요령 등을 토론했다.

또 정부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해온 전남도 도시재생지원협의회 건설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전남개발공사, 디자인전문가, 시군 도시재생센터장 등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됐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금까지 전남지역 8개 시군 13곳에서 2250억 원 규모가 선정됐다. 주차장 및 도로정비,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청년창업 공간 조성, 임대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 공모는 6월 이후 실시한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공모에 다수가 참여해 선정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며 "도가 선정하는 사업이 전국의 모범이 되도록 추진하는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홍보  
광주 북구가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3월까지 집중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15일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직원 순환팀 직원들이 용봉동의 한 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자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 전남도, 시군 사방사업 부적절 무더기 적발

지난해 전남 일선 시군에서 시행한 사방(砂防) 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특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된 도내 14개 시군의 사방사업과 관련된 특정감사를 통해 총 37건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해 주의 16건, 시정 17건, 권고 2건을 조치했다.

감사 결과 ▲사방지 지정 고시 미실시 ▲사방사업 하자검사 미실시 ▲현장대리인,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사방사업 감리비에 산집행 소홀 ▲사업비 정산소홀 ▲지역산사 태연도대책 미수립 등이 다수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여수시는 지난해 사방담 설치사업 4곳을 공사 착공일로부터 5~6개월이 지난 뒤에에도 지정 고시하지 않는 등 사방지 관리를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도 사방사업 시공감리비용 과정에서 지정 감리원이 퇴사한 후에도 감리원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안전, 공사 품질 관리를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양시는 지난 2012년~2017년 기간 준공된 공사 62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고 담보 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방담 설치사업 등 9건에 대해 최종 하자검사도 하지 않았다. 담양군은 애초 계획보다 운반 거리가

더 가까운 다른 채석장에서 골재를 구매 운반했는데도 확인하지 않는 등 전석운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지난해 시군으로 위임된 사방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 못하거나 사업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 대리인,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하자검사 미실시 등 중부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서 "사방사업 집행잔액 사용방안에 대한 검토, 사방지 지정 해제에 관한 법령 개선 요구 등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마르탄약고 이전 출석 거부 현역 장성 재출석 요구

### 광주 서구의회

광주 서구의회는 마르탄약고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의회 출석을 거부한 현역 군장성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서구의회는 15일 임시회를 열어 내달 회기 중 공군 제1전투비행단(공군1전비) 단장인 박한주 준장의 출석을 다시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제1전투비행단장을 참모장으로 불러 군 공항 이전사업 전망과 탄약고 현황, 영내 탄약고 운영 실태 및 추후 계획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박 준장 출석 요구 건을 의결했으나 공군1전비 측은 '출석 불가' 입장을 전했다.

1전비는 서구의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은 현역장군으로, 국방부가 추진하는 현안에 대해 자의

적인 의견 진술이 불가하다"며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 또는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에 직접 청취하라고 밝혔다.

2009년부터 이전 논의가 나온 마르탄약고는 군 공항 이전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이다. 서구 마르동 일대 36만9000㎡에 이르는 탄약고는 1전비가 사용하는 각종 탄약을 보관한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지목되는 무안군이 반대하고 국방부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전사업이 지연될 처지에 놓였다.

김옥수 서구의원은 "마르탄약고는 한국전쟁 말기인 1953년 반공포로 수용소로 징발된 부지에 세워졌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근 주민은 66년째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전남개발공사 중복기능 통합 조직개편

### 1본부 3실 6처 '슬림화'

전남개발공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복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한다.

15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어 개발공사정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전남도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곧바로 반영해 조직 개편과 함께 후속 인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개발공사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은 현재 검토, 사방지 지정 해제에 관한 법령 개선 요구 등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부서 명칭도 부에서 처로 변경한다.

본부 아래에는 경영지원처, 신사업개발처, 건축안전사업처, 분양보상처,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KIC 사업단을 돌 예정이며, 오토사업단과 주택사업단을 둔 택지개발사업실이 신설된다. 전략기획실은 기획조정실로 기능이 일부 조정되며, 감사실은 기존 조직이 그대로 유지된다. 부서장 직급도 2~3급에서 2급 이상으로 조정하고, 3급까지 실무자로 전진 배치해 현업부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직급별 정원은 임원 1명, 1급 2명, 2급 7명, 3급 13명, 4급 32명, 5급 41명, 6급 26명, 7~8급 14명 등 현재와 같이 총 136명으로 변동되지 않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선로 걱정없는 엘림형 태양발전소 분양

## 선착순

###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